

강렬한 맨드라미



'월계관 연가'

박동신 개인전, 30일까지 갤러리 관선재 '월계관 연가' 시리즈 등 30여점 전시

전시장에 걸린 30여점의 작품은 모두 '맨드라미'다. 강렬한 붉은 빛의 맨드라미는 하늘 높이 뜬 보름달, 나비 등과 어우러져 다양한 감성을 전한다. 서양화가 박동신 작가는 지난 2005년부터 줄곧 붉은 맨드라미를 그려왔다. 남도의 다채로운 풍경, 정물 등을 화폭에 부지런히 담아왔던 그는 작품 소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때 떠오른 게 바로 '어머니'였다. "영양 독천에 살 때의 어릴 적 기억이었어요. 환한 보름달 아래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독대 곁에는 맨드라미가 피어 있구요." 처음 맨드라미를 소재로 택하고 미친듯이 그림을 그렸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화실에 계속 머물며 1년에 100여점을 그리기도 했다. 이후 맨드라미 시리즈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나비와 휘영청 밝은 보름달 역시 늘 화폭에 함께 존재한다. 서양화가 박동신 작가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관선재(광주시 동구 공동 61-2)에서 열린다. 장애를 가진 왜소한 몸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는 7년 전에는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공력이 많이 드는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으로 재료를 바꿔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다. 13년전부터 딱딱한 캔버스 대신 한국화에서 쓰는 장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종이가 주는 부드러운 느낌과 아크릴 물감이 잘 어우러져 작품들은 색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작품에는 모두 맨드라미가 등장하지만 배치와 색감 등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모래를 오브제로 사용해 거친 느낌을 전한다. 또 어떤 작품은 번짐 효과같은 맑은 수채화 느낌도 난다. 뒤늦은 결혼으로 딸 '하림'을 얻은 박 작가는 올해는 처가인 베트남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만난 독특한 베트남의 맨드라미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화폭에 풀어냈다. 이번 전시 작품은 2층 갤러리 뿐 아니라 1층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다. 조선훈 회화회를 졸업한 박 작가는 광주미술상, 대동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32차례 개인전을 열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목포문학관·땅끝 순례문학관, 문학관 특성화 선정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

목포문학관(사진)과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이 '2020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랩지원' 공모에 선정됐다. 두 문학관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문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학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문학관을 지원해 특색 있는 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토대로 문학관을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먼저 목포문학관에서는 목포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창작,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경애 시인이 문학관에 상주하며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 시인은 올 12월까지 해설이 있는 문학관 나들이, 작가와의 만남, 글쓰기 교실, 유튜브로 만나는 목포문학관, 문학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와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땅끝순례문학관은 '문학, 한 걸음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지역민은 물론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도 즐길 수 있는 특별 기획 전시를 열 예정이다. 또한 문학진흥의 주요 거점인 문학관에 상주작가를 배치해 지역 문학 환경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상주하게 될 작가는 200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길은 물다'로 등단한 이원화 소설가다. 이 작가는 창작집 '키스가 있는 모텔', '꽃이 지는 시간',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펴냈다. 이 작가는 땅끝순례문학관과 백련재 문학의 집을 오가며 작품 창작과 아울러 문학관 홍보 영상 제작, 소설·자서전 쓰기·연구 모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남구 초대전, 5월1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화양연화' 주제... 19일까지는 유튜브 전시

넓은 전시장에 홍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오랜 풍파를 겪어온 고목에 핀 화려한 매화는 추운 겨울을 뚫고 올라온, 강인한 생명력의 다른 이름이다. 자유롭게 마음껏 뻗은 다양한 형상의 가지에 매달린 꽃들은 봄의 전령사이다. 강남구 작가는 몇년전부터 작업하고 있는 매화 소재의 '공간-생명력' 시리즈를 통해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전하고 있다. 순천·담양·화순 등 발품을 팔아 남도 지역으로 '탐매(探梅)' 여행을 다니며 마음에 담아둔 매화들을 화폭에 풀어내고 있다. 강남구 작가 초대전이 오는 5월1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당초 10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당분간 휴관이 결정됨에 따라 19일까지는 유튜브를 통해 전시를 공개한다. '각(GAC)나오는 TV'를 통해 전시와 해설과 함께 작품 제작 과정도 함께 소개된다. 광주문예회관 갤러리가 개인 작가를 초청해 전시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花樣年華)'다. 초대전이 열리는 공간이 대형 갤러리아 보니 100여 이상의 대작 등이 다수 내걸렸다. 겨우내 작업실에서 매화 그리기에 열중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모두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매화 그리기는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먼저 가지를 그리고, 그 위에 이끼를 올리고, 셀 수 없는 붓터치



'공간-생명력'

를 통해 가지 위에 매화 꽃잎을 엮는다. 이 과정에서 매화 나무는 입체감과 공간감이 얻어진다. 화폭에 담긴 흐드러진 매화와 그 꽃들에게 각각 다른 느낌을 부여하는 감각적인 바탕색이 어우러진 작품은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보라색, 녹색 등으로 딱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작가가 배합해낸 배경색과 눈부시게 하얀 매화, 각각 다른 농도의 붉은 빛 홍매화, 규칙 없이 뻗어나간 가지 등이 어우러지면서 같은 듯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화면을 가득 메운 매화의 색채를 대비적으로 사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매화 작품 뿐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려낸 붉은 석류알 하나하나가 인상적인 석류와 모과 시리즈도 함께 전시된다. 조선훈 미술대학과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강 작가는 지금까지 40차례 개인전을 진행했으며 '바람이 분다'(파리 씨떼데자르)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묘한 홍매화

영상 속 '안나 카레니나'

국립발레단, 18일부터 공연 유튜브 공개

국립발레단은 오는 18일부터 자사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안나 카레니나' 등 주요 공연을 중계하는 'KNB RE:PLAY'를 5월 중순까지 진행한다. 포문은 '허난설헌-수월경화'가 연다. 발레단원 강효형이 안무한 작품으로, 조선 중기 시인 허난설헌 시를 소재로 했다. 시에 등장한 잎, 새, 난초, 부용초 모습을 표현하는 무용수의 세밀한 움직임이 볼거리다. 오는 18일 오후 3시에는 수석 무용수 신승원이, 19일 오후 7시에는 수석 무용수 박승기가 각각 허난설헌을 연기한 버전이 상영된다. '안나 카레니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방구석 관객과 만난다. 톨스토이 동명 소설을 스위스 취리히발레단 예술감독이자 안무가인 크리스티안 슈콕이 안무했다. 안나 카레니나 역을 맡았던 박승기, 김리희, 한나래가 연기한 버전이 모두 상영된다. 5월 상영작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